

호남지역 가을맞이 다채로운 문화행사

도원사,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등 산사음악회 등 열려

한여름의 무더위와 태풍, 집중호우 등의 물난리 끝에 가을이 찾아왔다.

호남지역 사찰 및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산사음악회와 지역민이 하나 되는 문화잔치 등이 열렸다.

전남 화순 모후산 도원사(주지진철)는 9월 11일 경내에서 국태민안기원 및 국운옹장을 위한 영산대재와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형편의 초·중·고등학교 20여 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기원법회는 풍물단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작법시편, 법고시연, 육법공양, 봉행사, 축사, 법어 등으로 진행됐다.

2부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김상배, 우연이, 정현, 현진우, 주권기 등이 출연했으며 불자들의 노래자랑이 이어져 흥겨운 마당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선각종 종정 영담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화순군사암연합회 회장 지명 스님, 광주전남신도회 지용현 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15일 추석맞이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복지관 난타팀의 북 공연 모습.

주지 진철 스님은 봉행사에서 "이번 영산재와 산사음악회를 통해 많은 생명들에게 부처님 복덕과 지혜가 담긴 간절한 축원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난타팀의 북 공연과 레크레이션 및 폼바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에는 2010 한가위 어울림마당이 펼쳐졌다. 어울림마당

에서는 지난 9일 열린 경쟁과 함께 예선을 통과한 11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노래자랑을 했다. 이날 노래자랑에서는 1등에 김영규님, 2등에 이경순님, 3등에 최대식님이 영광을 안았다.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한 특별공연도 펼쳐졌다. 특별공연에서는 고창초등학교 이현민 외 1명의 설장구 공연과 고창여중 김재은 학생의

재즈댄스공연 등이 진행됐다. 도안 스님은 기념식에서 "올해 농사를 짓느라 수고하신 지역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오늘날만큼 복지관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공연을 마음껏 즐기길 행복하 하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녀자존자 대불청 전북지구 박동창 회장

“청년회활동은 불교의 미래”

전북 모악산은 어머니 품안 같이 포근한 산세로 전주와 김제에 걸쳐 자리하고 있다. 이곳 모악산 아래에는 전북 유일의 불교종립학교인 금산중·고교가 있다.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고 교내 법당인 선재원에서 대한불교청년회를 5년째 이끌고 있는 박동창 대불청 전북지구 회장을 만났다.

박 회장은 1992년부터 모교 금산중·고 교법사로 부임해 주당 8시간씩 종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파라마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수행하는 중이다. 박 회장의 말에서 청소년들과 봉사활동과 문화 활동을 하며 포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껴진다. 박동창 회장은 금산사 청년회 활동을 해오면서 매년 초파일이면 금산사에서 15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모잔치를 베풀고 있다. 청년회를 이끌며 전주와 김제에서의 연동축제 진행을 돕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일이다. 또, 매년 여름과 겨울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회원들의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불교청년회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와 환경보호 운동을 겸한 가족 등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동창 대불청 전북지구회장

청년회의 활동은 이뿐 만이 아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동학혁명 당시 희생당한 이들의 무연고 묘지를 찾아 별초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남달리 불교 청년활동을 열심히 벌여 온 박 회장이지만 그에게는 요즘 고민이 있다. “회원 감소로 인해 청년회 활동이 침체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젊은 불자들이 적극적인 실행활동에 나서서 불교의 미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보다 많은 청년불자들이 청년회 활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통사찰음식서 배우는 올바른 식생활

사찰음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 템플스테이, 익산 승림사

서구인의 식습관에 적응된 청소년들은 고지방·고열량 등의 인스턴트 음식을 과다섭취해 비만과 성인병 등을 앓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 속에서 먹거리를 직접 자연 속에서 기르고 채취해 영양과 피가 최소화된 조리법으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는 의미있는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익산 승림사(주지 지광)는 9월 11~12일 '사찰음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친환경적인 사찰 발우공양을 통해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또한 직접 채취한 피마자 잎, 모시 잎, 당귀 잎 등을 조리하는 체험도 가졌다.

주지 지광 스님은 "이번 템플스테이 참가 청소년들은 사찰음식을 통해 식생활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학생들이 직접 채취한 피마자, 모시, 당귀 잎 등으로 사찰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을 강화함은 물론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진가 양병주 명상 사진전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만을 모아 전시하는 사진전이 열린다.

양병주 작가의 '참나무의 꿈' 명상 사진전이 '천년의 꿈, 불국사에서'를 주제로 9월 12일부터 약 1달간 경주 문화엑스포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만으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전시회다.

양 작가는 기존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불국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시도했으며, 불국도를 현실세계에 구현해보겠다는 신라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불국사를 통해 천년 속에 살아 있고 또한 참나무 속에 천년이 있음을 렌즈에 담아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현지사 소개 세번째 이야기 불신관(삼신론) ①

‘오직 현지사에만’ 상주하시는 보신의 부처님

부처님 회상 영산불교에서 범보화 삼신(佛身觀·三身說)의 진정한 의미를 인류 역사 앞에 밝힙니다



◆ 우주 온 법계에 두루 편만하신 부처님(法身佛)

중생들이 윤회하는 육도, 실로 부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에도 땅 한줌에도 그 어떤 생명체에도 부처님의 찬란한 광명은 편만하여 온 법계를 비추고 계십니다. 우주 온 법계와 완전한 계합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형상도 없고 생각도 없으며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고 그저 우주 자체가 되어 여여하게 계실 뿐입니다. 바로 이 부처님이 교학에서 말하는 법신불(法身佛)이십니다.

◆ 부처님은 현지사에만 계신다(報身佛)

이 선언은 진실입니다. 불과를 이루게 되면 한분의 부처님 온 세 개의 몸(三身)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세 몸을 각각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데 '현지사에만 상주하신다'는 부처님은 보신의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 중심이 되는 보신부처님

중생이 수억겁의 수행을 통해 불과를 이루게 되면 형체와

◆ 사바세계의 성지들

세계 곳곳에는 성지가 있습니다. 절반쯤 되는 사찰에는 보신의 부처님이 계시지만 이곳을 성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보신의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성지라고 합니다. 인도 영축산(석가모니부처님), 중국 청량산(문수보살님), 한국의 오대산 상원사,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관세음보살님)를 비롯 사바세계에서 보살행하시는 여러 보신 부처님들께서 종종 머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을 성지라 부르고 이 곳을 찾는 수많은 불자들이 큰 과보를 얻는 것입니다.

◆ 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빛의 도량, 성지중의 성지 현지구 현지사

만일 보신의 부처님께서, 그것도 기라성 같은 여러 보신부처님들께서 사바세계에 항상 머무시는 곳이 있다면 이곳은 성지 중의 성지이며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사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불과를 이루기 위해 사바세계에 제자가 몸을 받아오면 제자를 의호하고 공부를 이끌기 위해 보신의 부처님들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성지 중의 성지가 됩니다. 현지사는 사바세계 유일할 성지입니다. 이제 사바세계 곳곳에서 보살행하시는 부처님들마저도 이곳에서 상주하시게 됩니다.

◆ 중생들의 복전, 수행의 도량

보신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성지, 현지구 현지사에서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수행 중 병의하게 되는 의미가 철저히 차단됩니다. 그 어떤 의미와 의해서도 공부를 방해받지 않는 청정한 수행도량입니다. 이곳 현지사는 보신부처님의 크신 위신력이 발휘되는 곳이기에 우주의 이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못 이를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세세생생의 복전이 될 선근공덕을 쌓는 겁에 한번 있을까 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16세 | 17년 | 25,000원 388년 | 25,000원) - 한글·영어판·일어판 1권 대행서점 종교서적 부부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 영혼체 윤회론 (158년 | 10,000원)

검증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 관음대,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년 | 10,000원 311년 | 15,000원)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하시어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 영육아 시기의 교육과 평안한 사후를 위한 완벽한 대비책을 제시한다.

■ 칠태무루 (238년 | 15,000원)

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인 칠태무루! 그녀가 불교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되짚어 불교사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재정의하고자 한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QOOK 550, BTV 521, U+108번)

효(孝)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증유한 천도대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지사의 천도대재는, 부부 각각의 친·외가족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유택 무주고혼 조상 영가님 모두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 주소를 파악, 집전 장소로 데려옵니다. 복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복위자의 집을 이전보다 더 맑은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줍니다. 또한 조상 영가님들을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덕으로 한단계 높은 곳으로 천도해 드립니다. 네 번이면 무주고혼과 지옥의 영가들을 하늘 천국까지 올려드리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희유한 천도제입니다.